Analyst 홍진호 ☎ 02 6915 5723 [siggy00@ibks.com]

2012년 11월 건설기계 수출 현황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국내 건설기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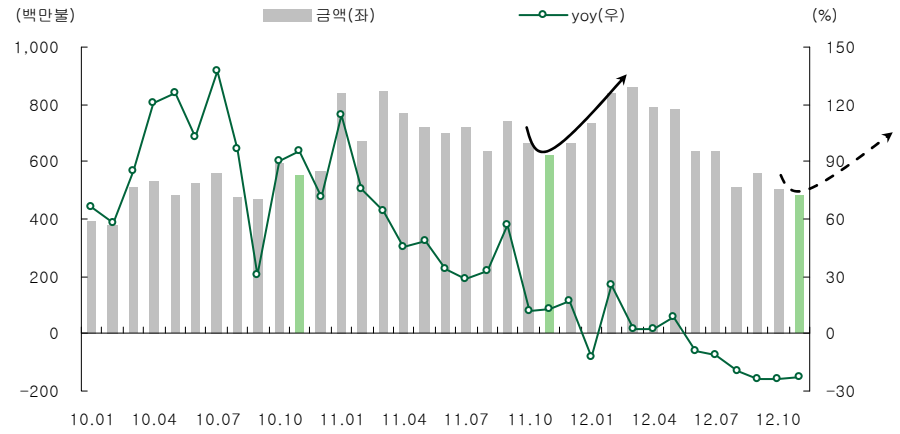
2012년 11월 국내 건설기계 수출현황(잠정치)이 발표되었다. 11월 CKD 및 지게차를 포함한 국내 건설기계 수출금액은 전년동월대비 22.6% 감소한 4.8억불을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지게차를 제외한 건설기계(부품 포함)가 전년동월대비 25.4% 감소한 4.3억불(-4.5%, MoM)을 기록하였으며 지게차는 12.6% 증가한 5천만불(-7.5%, MoM)을 기록하였다.

전체적인 수출금액 성장률은 -22.6%로 9월부터 3개월 연속 20%를 상회하는 감소율을 기록 중이다. 12월 수출금액이 10~11월과 유사한 5억불 수준에 머물 경우 4분기 국내 건설기계 수출금액은 전년대비 23.8% 감소할 전망이며, 2012년 연간으로도 전년대비 8.8% 감소한 78억불(2011년 86억불)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수출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10월과 마찬가지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던 미국 수출금액이 비교적 큰 폭으로(-16.4%, yoy) 감소했기 때문이다. 미국 수출금액은 10~11월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 외 국가별 11월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브라질, 인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중국은 전년동월대비 56.2% 감소하며 여전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벨기에, 인도네시아, 터키 등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4분기 수출금액이 2012년 분기별로 가장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 추세를 보면 연말을 기점으로 수출금액이 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내 최대 수출국가인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이 연말을 저점으로 1~2분기 계절적 성수기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수출금액도 9월을 저점으로 두 달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그림2 참조). 따라서 국내 건설기계 수출은 4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회복국면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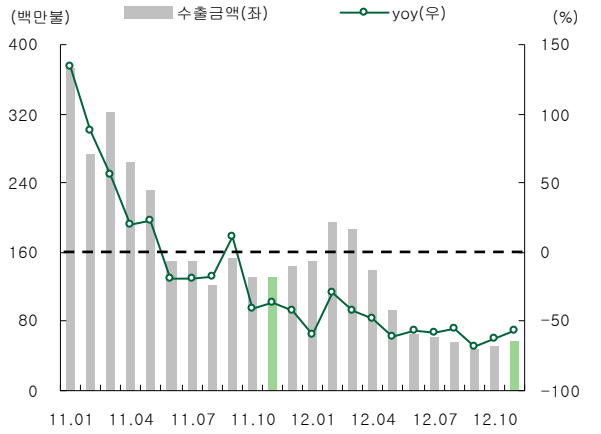
그림 1. 월별 국내 건설기계 총 수출현황 (부품 및 지게차포함) – 4분기 저점 이후 회복 전망



주: 11월 데이터는 잠정치
자료: 관세청,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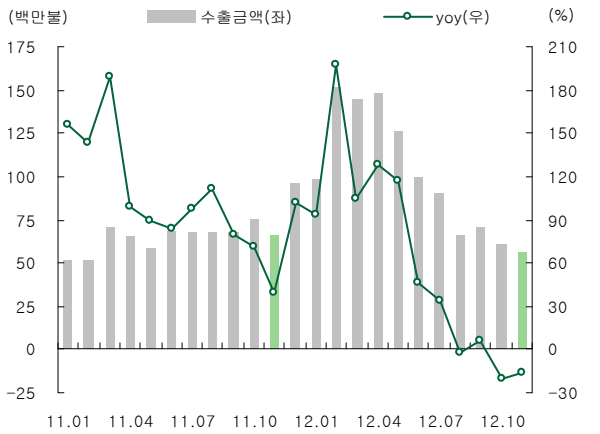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림 2. 중국 수출금액 추이 – 4분기 이후 반등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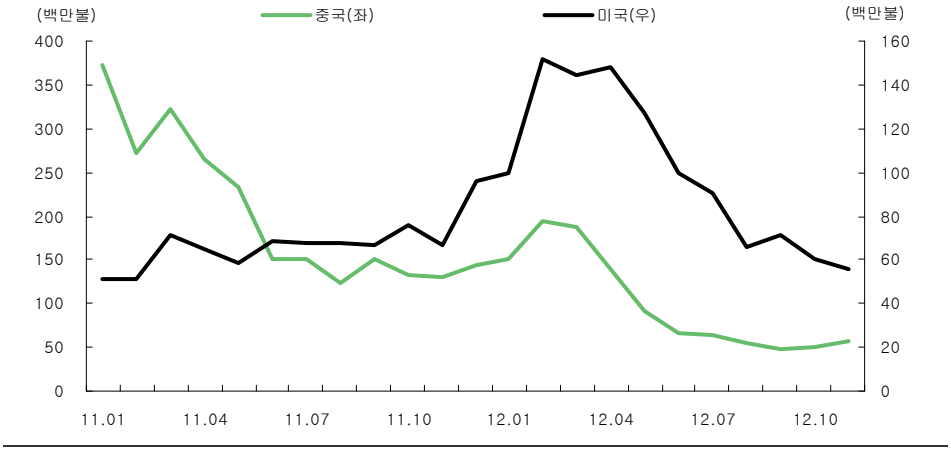
주: 11월 데이터는 잠정치
자료: 관세청, IBK투자증권

그림 3. 미국 수출금액 추이 – 하락 지속



주: 11월 데이터는 잠정치
자료: 관세청, IBK투자증권

그림 4. 중국 vs 미국 월별 건설기계 수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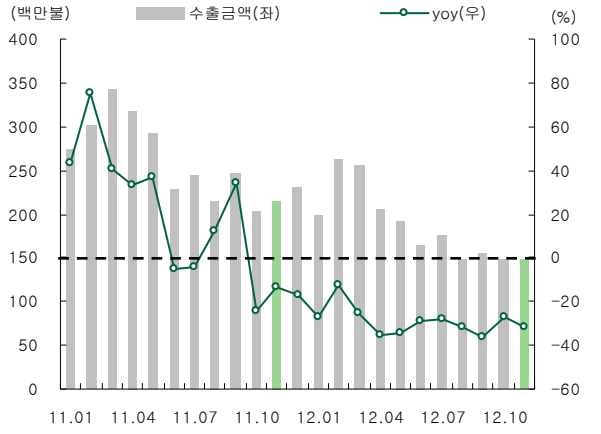


주: 11월 데이터는 잠정치
자료: 관세청, IBK투자증권

건설기계부품 수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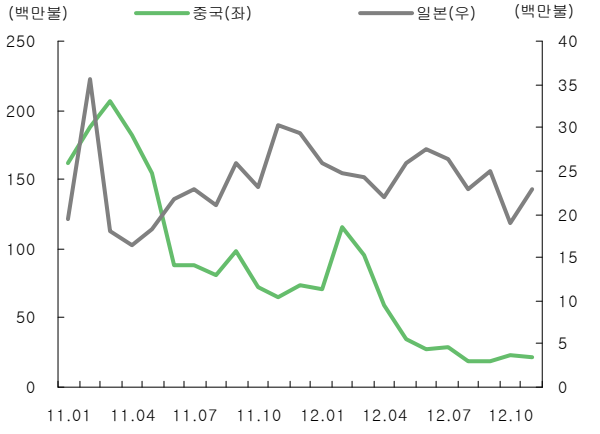
2012년 11월 국내 건설기계부품 총 수출금액은 중국, 일본, 미국 수출이 모두 감소하며 전년동월대비 31.7% 감소하였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감소추세가 14개월 연속 이어지며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수출 감소를 상당부분 상쇄시켜 준 일본수출 증가세도 9월 이후 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5. 월별 국내 건설기계부품 수출현황



주: 11월 데이터는 잠정치
자료: 관세청, IBK투자증권

그림 6. 월별 국내 건설기계부품 중국/일본 수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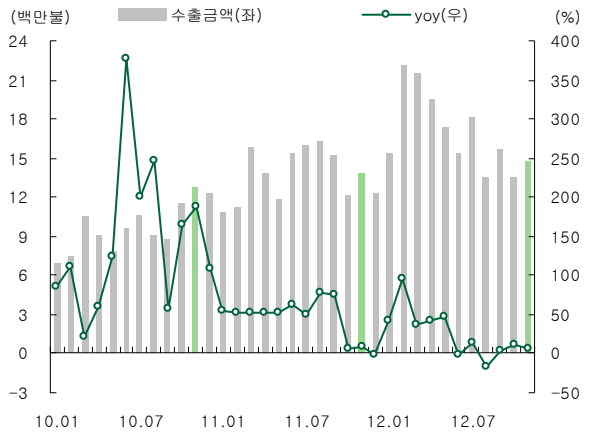


주: 11월 데이터는 잠정치
자료: 관세청, IBK투자증권

개별 부품 품목별로는 **[크레인, CPT ⇒ 호조 // 유압실린더, 천공기 ⇒ 견조 // 브레이커 ⇒ 부진]**으로 요약된다. 크레인, 콘크리트 펌프트럭(CPT)은 연초 이후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고, 유압실린더와 천공기(Rock Drill)는 소폭이지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굴삭기 판매량에 3~6개월 가량 후행하는 유압브레이커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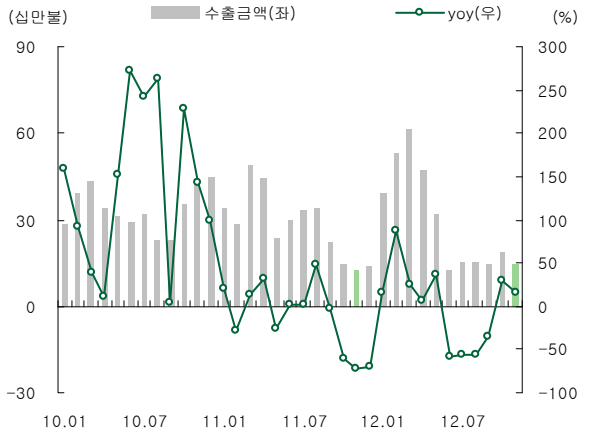
유압실린더 11월 수출은 일본 및 중국 수출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6.2% 증가한 1,473만불을 기록하였다. 수출 1위 국가인 일본수출이 49.3% 증가하며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 2위 수출국인 미국 수출금액은 21.7% 감소하였다. 중국 수출금액은 16.1% 증가하였는데, 지난 10월 수출동향 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부품재고가 소진된 상태에서 계절적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부품 Restocking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2월에도 현재의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12년 4분기 유압실린더 수출금액은 전년대비 10.5% 증가한 4,231만불이 예상된다.

그림 7. 월별 국내 유압실린더 수출현황 – 반등 지속



주: 11월 데이터는 잠정치
자료: 관세청, IBK투자증권

그림 8. 월별 국내 유압실린더 중국 수출현황 – 반등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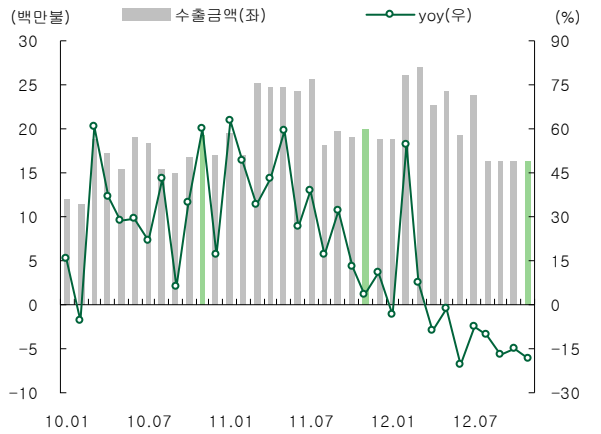
주: 11월 데이터는 잠정치
자료: 관세청, IBK투자증권

유압브레이커 수출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1월 수출금액은 전년동월대비 18.5% 감소하며 8개월 연속 역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통상 굴삭기 판매에 3~6개월 후행하는 제품 특성상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크레인과 콘크리트 펌프트럭(CPT) 수출 호조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크레인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11월 크레인 수출금액은 러시아 수출 급증세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21% 급증한 703만불을 기록하였다. 러시아 수출이 300% 가까이 급증하였는데, 러시아는 2014년 동계올림픽(소치), 2018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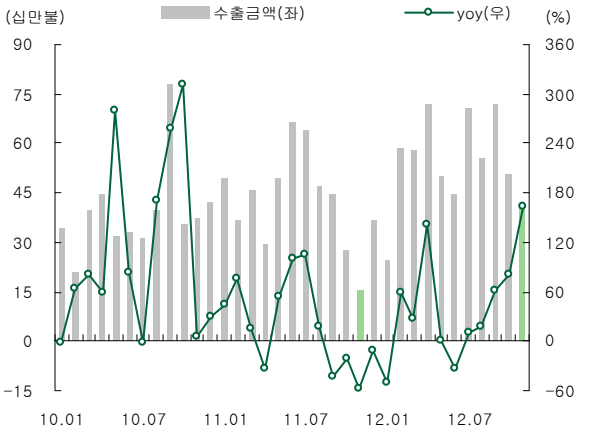
CPT 11월 수출금액은 사우디와 캐나다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64% 급증한 410만불을 기록하였다. 다만 전월대비로는 18.7% 감소하였다.

그림 9. 월별 유압브레이커 수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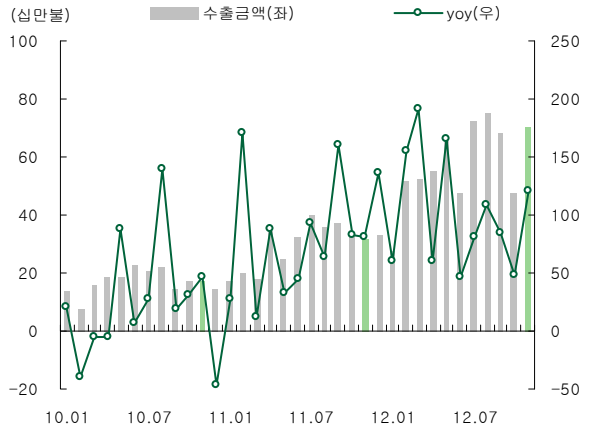
주: 11월 데이터는 잠정치
자료: 관세청, IBK투자증권

그림 10. 월별 CPT 수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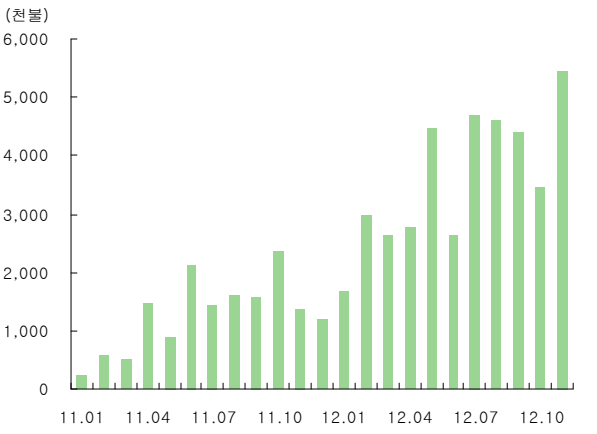
주: 11월 데이터는 잠정치
자료: 관세청, IBK투자증권

그림 11. 월별 크레인 수출현황 – 높은 성장세 지속



주: 11월 데이터는 잠정치
자료: 관세청, IBK투자증권

그림 12. 월별 크레인 러시아 수출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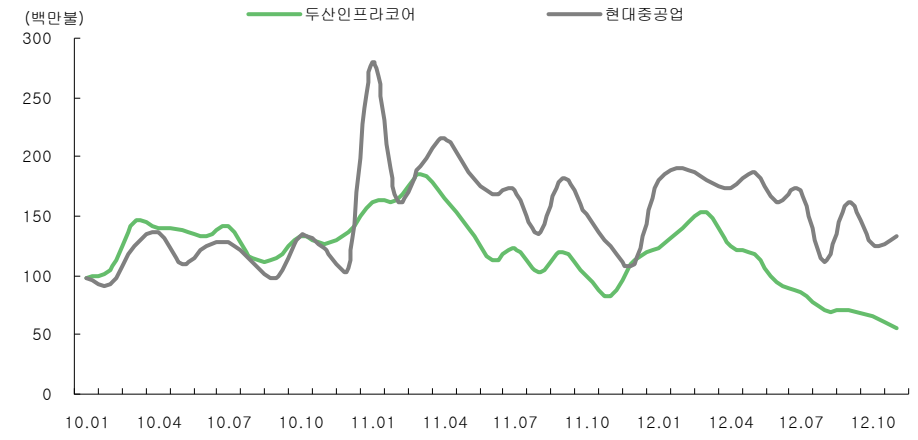
주: 11월 데이터는 잠정치
자료: 관세청, IBK투자증권

업체별로는 두산인프라코어 부진, 현대중공업 선방

지게차를 제외한 두산인프라코어(이하 두산) 11월 건설기계 수출금액은 전년동월대비 33.4% 감소한 5,500만불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대비 감소세는 1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전월대비로는 지난 3월 고점 이후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2년 4분기 두산의 수출금액(지게차 제외)은 전년대비 33.2% 감소한 2억불 수준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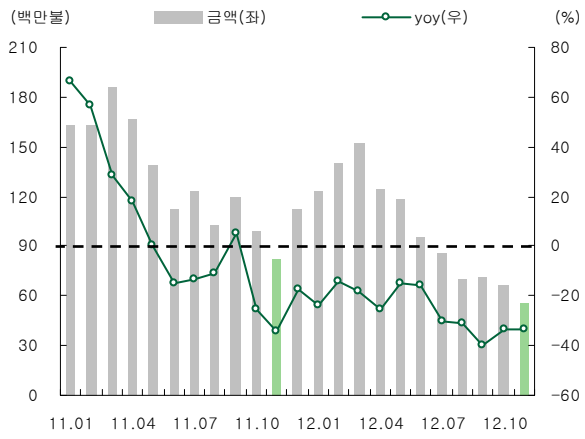
반면 현대중공업(이하 현대) 11월 수출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지게차를 제외한 현대의 건설기계 수출금액은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하며 3개월간의 하락세에서 벗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브라질, 아프리카 수출을 확대시키며 부진한 업황 대비 선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지게차를 포함한 현대중공업 11월 수출금액은 전년동월대비 11.0% 증가한 1.5억불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3. 월별 두산/현대 건설기계 수출현황(지게차제외,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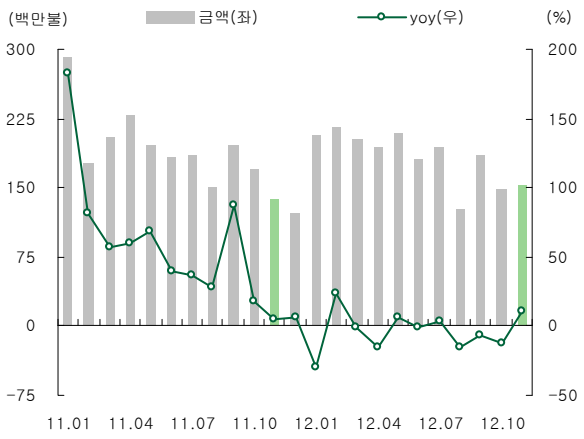
주: 11월 데이터는 잠정치
자료: 관세청, IBK투자증권

그림 14. 월별 두산 건설기계 수출현황 (지게차제외, 추정치)



주: 11월 데이터는 잠정치
자료: 관세청, IBK투자증권

그림 15. 월별 현대 건설기계 수출현황 (지게차포함, 추정치)



주: 11월 데이터는 잠정치
자료: 관세청, IBK투자증권